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2차 북미정상회담과 통일로 가는 길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결렬이라고 부르고 있다.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헤어졌기 때문이다.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특이한 합의는 있었다.

있고 더 큰 핵 단추를 갖고 있다고 서로 겁박하면서 대립과 적대감으로 맞서던 두 정상은 두 번째 만났다는 자체만 해도 큰 성공이다. 정상들이 만나기까지는 외교부 장관과 실무자들이 수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조절해서 시기와 장소, 의제, 세세한 일정과 동선 등을 거의 100% 가깝게 합의해 놓은 상태다. 정상들은 만나서 웃으면서 사전에 조율해 놓은 합의문에 서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Evil in the Detail)는 말처럼 국제관례에 어긋나게 회담 막판에 틀어박혀 있다. 그러나 두 정상은 웃으면서 인사하고 헤어지고 서로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겹고 생각하면서 신뢰를 쌓은 것이 큰 진전이다.

6·25 전쟁 참전 적대 국가이며 거대한 핵보유국 러시아에 왜 핵무기 버리라고 하거나 줄이라는 말 한마디 않고 차관까지 주면서 수교했는가. 1992년 6·25 전쟁 참전으로 서로 살육했던 적대 국가이며 핵보유 강국 중국과는 왜 핵을 문제 삼지 않고 한·중 수교를 했는가. 북한은 그 때부터 정상국가로 되기 위하여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간절히 바랐다. 미국의 냉전(冷戰) 수구(守舊) 보수 정권은 분단과 대결, 적대감과 긴장 조성으로 이익을 보았다. 남한은 미군기지 이전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방위비 분담과 미국의 최신 무기를 몇 조원씩 수입하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 되었다. 보수정권은 선거 때가 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일까지 했다.

선택이다. 북한이 그토록 바라던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었다면 경제발전을 희생하면서까지 핵을 개발하지도 안 했을 것이고, 갖고 있는 핵도 평화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지 않 해서 비정상국가로 만들어 놓고, 살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개발한 핵무기만 먼저 버리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통일로 가는 결론을 말하겠다. 미국과 한국의 국력과 통합 군사력에 비하면 게임도 안되는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지 말고, 지금 바로 남·북 수교,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해야 한다. 다년간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 북·미, 북·일 간에 경제, 문화, 체육, 정치, 관광 등 수많은 교류 협력의 틀이 마련되면, 통일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남·북 수교,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가 되어서 교류와 신뢰가 쌓이고 서로가 이익과 발전이 있는데, 북한이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자폭 핵공격을 하겠는가.

나의 주장에 대하여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 북한 편이냐, 너무 낭만적이나, 비현실적이나, 순진한 생각이나고 공격할지 모른다. 3월 12일(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여 본회의가 20여분 소란과 퇴장, 몸싸움과 중단 상태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분노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나도 북한 대변인이라고 공격당할지 모른다. 비핵화라는 정쟁은 완전히 내려놓고, 평화협정을 하루 빨리 체결하여 남·북 수교, 북·미 수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10년 이상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이다.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평화통일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두 나라 정상이 많은 교섭과 우여곡절을 거쳐서 만나는 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내놓지 못한 것을 그 자체로만 본다면 결렬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일 문제는 경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긴 안목으로 길게 보아야 한다. 단기적 안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큰 진보이고 큰 성공이다.

세계 최강의 대제국 미연방중중국 미국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북한 정상을 만나러 아시아 베트남 하노이까지 가서 이를 동안이나 다섯 번 이상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겹고 생각하고 신뢰를 쌓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60시간 이상 특별 제작된 전용열차를 타고 갔다가 다시 60여 시간 동안 열차로 귀환했다. 비행기로 가면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열차 탑승을 선택했다. 장시간의 열차 이용에는 경호와 중국의 배려 파시 등 많은 고려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非核)하면 북한 주민의 국민소득을 3000불까지 올려주도록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비핵개발3000'을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통일정책을 추진했다. 보수정권 10년 통일정책 결과는 금강산 관광 중지와 개성공단 폐쇄, 모든 남북관계 단절 등 남북관계 파탄과 전쟁 분위기 조성이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非核化)를 먼저 하라는 주장은 실체라는 것을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미국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다.

나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아쉬운 감은 있으나 결코 결렬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 마디로 큰 진전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일년 전만 해도 핵 단추가 책상 위에

북미관계와 통일문제의 본질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한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제주도로 초청하여 50억을 차관을 주면서 한·러 수교를 했다.

통일로 가는 길은 단계적·동시적이어야 한다. 북한 핵무기는 체제보장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社說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해야

환경부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이나 밤 대신 낮에 근무하도록 조치했다니 기대가 크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새벽과 야간의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다가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2017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사망자 18명을 포함해 총 1천822명이 다.

환경부는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작업 시간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청소차 운전자가 차 뒤와 옆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청소차 적재함 덮개나 압축장치를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스위치와 안전점검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기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3인 1조 작업 원칙도 세우고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미세먼지 등 각종 악천후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전국 환경미화원 약 4만3천명에 적용된다.

환경부가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구속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禮別尊卑

禮別尊卑

▷ 뜻: 예도(禮度)에 준비(準卑)의 분별(分別)이 있으니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의 차별(差別)이 있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늘어나는 미세먼지로 인한 예방수칙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특보가 내려지고 있다. 우리고장 전남 또한 미세먼지주의보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대기 질 '나쁨' 수준의 증가로 우리 전남 또한 미세먼지에 관련하여 예방하여 전남도민의 건강의 질을 보호해야 하며 낮과 밤의 기온 차도 커서, 미세먼지 예방 및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른 기본 예방 원칙이 있다.

첫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코와 기도를 거쳐 폐에 도달함으로써 폐와 혈액 속으로 유입되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대개 도로변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으므로 도로변에서 운동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실외

활동 시에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불가피한 외출 후에는 꼭 코와 손을 잘 씻어 예방해야 한다.

셋째, 실내에서 흡연, 촛불을 켜는 행위는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피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외부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호흡기가 건조해지면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습기, 젖은 수건 등으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수분이 부족할 경우 호흡기가 건조해져 미세먼지의 침투를 더욱 쉽게 만들기 때문에 하루 8잔(1.5L)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비타민 C·B와 엽산이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예방원칙을 숙지한다면 전남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미세먼지에 대해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다.

행병목 / 순천 왕조119안전센터 소방사

湖南新聞 湖南新聞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